



2016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겨울호 (Vol.2)

# e-날씨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 CONTENTS

## 2016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겨울호 (Vol.02)

---

### INTRO

04 / 2016년 丙申年을 맞이하면서 새해인사 및 다짐

10 / Goodbye 2015 한해를 돌아보며

---

### WEATHER

12 / 지난 계절(2015년 가을철) 대전·세종·충남지방 기후특성

14 / 가을철(9월~11월) 절기 기후정보 다시보기

16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1 - 10월에 시작하는 단풍 VS 11월에 시작하는 단풍

18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2 - 엘니뇨·라니냐, 간편하게 알아보자

20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3 - 10월에 내리는 눈 VS 12월에 내리는 눈

22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4 - 2015년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기상 핫이슈는?

24 / 예보상식 - 눈, 비 어떻게 판별할까?

---

### SPECIAL ISSUE

26 / 대전지방기상청 Book Cafe - 공직사회의 티핑포인트는 어디일까?

28 / 가을문화체험수기 - 가을문화체험? 서해안 대설체험...

30 / 브런치 기후카페 대전점 총 매니저, 뉴욕의 브런치 카페를 점수하다

32 / 우리나라 100대 명산 산행기

---

### REPORT

34 /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3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4 / 민원신청방법

45 / 대전지방기상청 체험학습 신청방법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16년 1월 15일 겨울호 (Vol.2)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임용한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김영희(기획운영과), 최상희(예보과), 손진영(관측과), 안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민희(기후서비스과), 김연직(예보과), 김정희(기획운영과), 김화진(예보과), 박난수(기후서비스과)

박미영(예보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박창용(기후서비스과), 박형진(기후서비스과)

배철호(기후서비스과), 백은희(홍성기상대), 이민우(관측과), 이상걸(예보과), 이인성(예보과)

이재영(관측과), 임장수(예보과), 홍성근(관측과)

2016년은 희망차고  
주변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멋진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득 품은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전청장 임용한

2015년 지난 한해 행복하셨는지요...

한해를 되돌아보며 저는 제 자신이 행복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3가지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이란 향수와 같습니다. 자신의 몸에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때문이죠. 2016년은 희망차고 주변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멋진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해 우리 대전지방기상청 직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에는 ‘뼈에 새길 만큼 강하게 박힌다’는  
각인(刻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획운영과장 고달홍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에는 ‘뼈에 새길 만큼 강하게 박힌다’는 각인(刻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늘 하는 말이 뇌에 강하게 박혀서 실제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지난해에는 짜증 섞인 말들을 자주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사랑해’, ‘고마워’, ‘즐거워’ 같은 좋은 말들을 습관적으로 해서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띠 해에는 직원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2016년 丙申年을 맞이하면서 새해인사 및 다짐 #2



예보과장 권오웅

크게는 우리 나라에, 작게는 우리 주변에 별다른 일이 없이,  
기상 재해도 없이 순탄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만일 인간의 두뇌가 완전하다면 해마다 새로운 결심을 할 필요가 없다. 한해의 마지막 날, 연초에 결심한 것을  
돌이켜보면 실행한 것이 1/3, 실행한 것이 1/3, 나머지 1/3은 무엇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런 면에 인간  
생활의 아름다운 바가 있다. (임어당, 1895-1976)“

이런 글을 읽으면 올 한해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며 스스로 미안해하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ㅎㅎ

대전에 내려와 네 번 바뀌는 계절을 바라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낫설기만 했던 저를 따스하게  
맞아주던 대전기상청 식구들 덕분에 한해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을 씨줄로, 햇볕과 구름을 날줄로 엮은  
한해. 덕분에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儉而不陋 華而不奢) 피륙을 짤 수 있었습니다.  
막판에 들려온 낭보에 한 해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고요.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대전청 식구들이 조금은 더 도전적인 면을, 조금은 더  
역동적인 모습을 드러내주기를, 그래서 이 구성산 언덕이 좀 더 활기를 띠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을미년을 보내고 병신년이 밝아옵니다. 그 다음해는 정유년. 국사 책을 뒤적여보면 을미, 정유와 달리 병신년에는 이렇다  
할 만한 일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한해, 크게는 우리 나라에, 작게는 우리 주변에 별다른 일이 없이, 기상  
재해도 없이 순탄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林語堂의 말을 이끌어 쓰면서 마칩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설날 그믐날, 연초에 다짐한 것들을 되돌아보며 아쉬워하는데 있다”



기후서비스과장 신기항

대전청 직원분들 모두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번 1월 1일 대전청 기후서비스과에 새로 부임하게되면서 남들보다 더욱 특별하게 새해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올 해는 붉은원숭이의 해인 것처럼 저에게도 도전적이고 활기찬 한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청 직원분들 모두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

관측과장 이기봉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乙未年)이 저물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은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조직문화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원숭이띠 한해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나부터 생각을 바꾸어 나가시죠...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6년 丙申年을 맞이하면서 새해인사 및 다짐 #3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가정과 직장에는 희망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홍성기상대장 김태수

2016년 병신(丙申)년은 빨간 원숭이 띠의 해로 병(丙)은 빨간색을 상징하고 신(申)은 원숭이를 상징합니다.  
2016년 새해에 붉은 원숭이의 띠가 찾아왔으니,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가정과 직장에는 희망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해서 나누는 행복한 2016년이 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생겨서 나날이 번창하고 도약하는 대전지방기상청 직원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2016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다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보과 방재예보관 심성보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빨리 새해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근무하면서 국민들께 좀 더 정확한 예보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동료들과 함께 기상에 관한 연구와 고민을 해오다 보니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나름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 왔다고 생각하지만 변화무쌍한 날씨와 긴박한 기상상황들은 여전히 저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겸손함을 잃지 말라고 일깨워 줍니다.

저는 2016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다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전에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듯이 저 또한 후배님들께 하나라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같이 고민하며 업무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선배님들의 노하우와 후배님들의 새로운 예보기술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지켜보면 후배님들 또한 예보를 생산함에 있어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 질문도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덧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파해야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동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는 목표가 있으시겠지요.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각자가 세운 목표와 다짐들이 모두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구성원 각자가 세운 목표와 다짐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 기상청의 발전을 이루고 앞날을 밝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가오는 2016년 한해,  
크게는 우리 나라에, 작게는 우리 주변에  
별다른 일이 없이, 기상 재해도 없이  
순탄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 Goodbye 2015 한해를 돌아보며



2015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으며, 오랫동안 바라왔던 기상서기보 시보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보과 박종숙

2015년 10월 5일, 대전지방 기상청 예보과에 소속되어 충남 내륙지역의 동네예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전문성을 갖춘 기상인이 되고자 대기과학을 전공으로 첫발을 내딛은지 10년만에 기상청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설레며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지만, 쉽게 흥미를 잃는 저에게 10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걱정의 시선들, 내 자신을 항상 의심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던 시간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할 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제 멘토께서는 앞으로의 제 삶은 시작하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해야 할 일, 저를 필요로 하는 일, 그 어떤 일에도 소홀함 없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2015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으며, 오랫동안 바라왔던 기상서기보 시보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힘든 수험생활 끝에 기상청 9급 시험에 합격한  
너무나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기후서비스과 박형진



취업준비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처음 기상청 합격자 명단에 제 수험번호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본청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첫 발령의 긴장감 속에 정신없이 생활하다보니 어느덧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한지 두 달이 지나고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한 해여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은 뒤로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기상청 시험에 합격한지 6개월이 지나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 직원이 되는 만큼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기상청 직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아쉬움과 고마움 그리고 감사함이 공존했던 한 해!

관측과 남미선

먼저 기상청 입사를 계획하고 숨 쉴 틈 없이 달려온 기간을 버텨준 내 자신에게 고맙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 하지만 내 발등만 쳐다보고 바쁘다고 아우성치던 시간들로 항상 받기만 하고 마음의 빔을 지고서도 고맙다는 인사조차 미루고 있는 시간을 반성한다.

올해 가장 큰 성과는 기상청 입사이다. 택시를 타고 “기상청으로 가주세요. “하면 “기상청이 어디예요?“ 기상청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경험해 본 일일 것이다.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지만 또한 묵묵히 멀리서 제자리를 지키는 곳! 이 곳은 9급 신규자인 내게는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짧고도 긴 12주 동안의 조직적응교육과정에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내 손에는 진흙과 먼지가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그건 먼지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금가루였다. 이 금가루를 갖고 10월 5일!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첫 출근이었다. 대전지방 기상청 관측과에 출근했을 때의 가슴의 벅차오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게는 또다른 선물이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근무하고 있다. 아직은 미숙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 더 많지만 언젠간 누군가에게 기억하고 싶은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야겠다. 한 해를 보내며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2016년에는 좋은 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채우며 조금 더 소중하게 보내리라 다짐해 본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어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홍성기상대 유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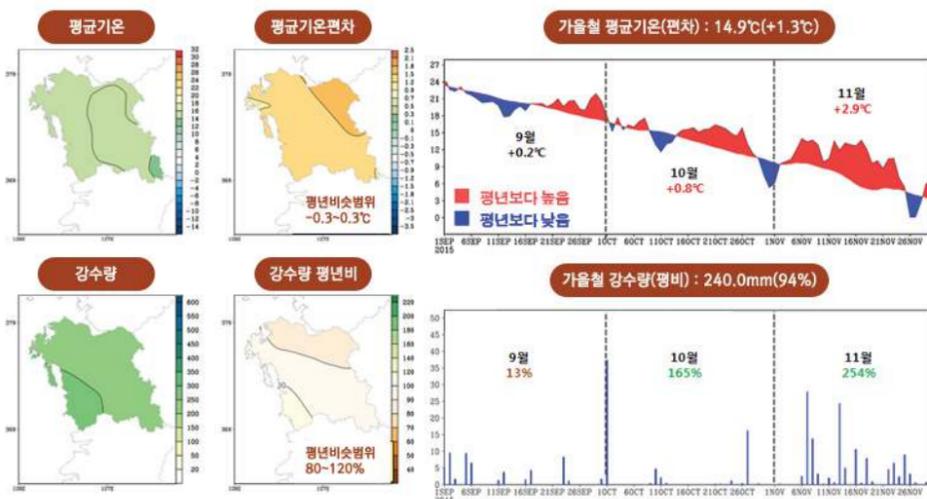
올미년, 청양의 해인 2015년은 양띠인 저에게 소중한 기억들로 가득 찬 한해였습니다. 올해 1월 서산으로 첫 발령을 받고,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나 다시 서산에서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신규자였던 저에게 많은 도움과 응원의 말씀을 건네주셨던 모든 기상청 직원분들이 떠오릅니다. 사회생활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 였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5년 대전·세종·충남지방 가을철 기후특성

### 평년보다 높은 기온, 9월 이후 많고 잦은 강수

- 가을철 대전·세종·충남지방의 평균기온은 14.9°C로 평년(13.6°C)보다 1.3°C 높았음
  - 9월 평균기온은 20.5°C로 평년(20.3°C)과 비슷하였고, 10월에는 14.4°C로 평년(13.6°C)보다 높았으며, 11월에는 9.6°C로 평년(6.7°C)보다 높았음
- ※ 1973년 이후 가을철 평균기온 최고 2위 기록  
1위 : 1975년(15.2°C), 2위 : 2015년(14.9°C), 3위 : 1998년(14.8°C)

- 가을철 대전·세종·충남지방의 강수량은 240.0mm로 평년(255.0mm)대비 94%였음
  - 9월 강수량은 19.6mm로 평년(150.3mm)보다 적었고, 10월에는 85.9mm로 평년(52.1mm)보다 많았으며, 11월에는 134.5mm로 평년(52.7mm)보다 많았음
- ※ 10월부터 가을비 치고는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어 대전·세종·충남지방의 극심한 가뭄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음



가을철 (위) 평균기온과 평년편차(°C) 및 대전·세종·충남 5개 지점 평균기온(°C) 편차 일변화, (아래) 강수량(mm)과 강수량 평년비(%) 및 대전·세종·충남 5개 지점 강수량(mm) 일변화

### 9월 매우 적은 강수량

-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전·세종·충남지방의 9월 평균 강수량이 평년대비 13.0%로 강수량이 매우 적었음
  - 최근 42년간(1973년 이후) 9월 강수량 최저 3위 기록 경신
- ※ 1위 1982년 6.1mm, 2위 1996년 11.4mm, 3위 2015년 19.6mm

### 10월 두 차례 많은 비

-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려 대전·세종·충남지방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음 (평년대비 165%)
  - 1일에는 제21호 태풍 두취안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렸으며, 10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한 곳이 있었음
- ※ 10월 일강수량 극값 5위 : 1일 부여 60.0mm
- 27일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11월 많고 잦은 강수, 이상고온

- 엘니뇨의 영향으로 필리핀 해 부근에 형성된 고기압성 흐름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과 함께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가 자주 내렸음
  - ※ 강수일수 최다 1위 1985년 19.6일, 2위 2013년 15.2일 3위 2015년 15.0일
- 대전·세종·충남지방 강수량 평년대비 254%로 1973년 이래 최다 3위
  - ※ 강수일수 최다 1위 1985년 19.6일, 2위 2013년 15.2일 3위 2015년 15.0일
- 난기의 유입과 구름 낀 날씨로 최저기온이 높게 나타나면서 대전·세종·충남지방의 평균기온이 9.6°C로, 평년보다 2.9°C 높아 1973년 이래 최고 2위였음
  - ※ 대전·세종·충남 일조시간은 68.7시간으로 1973년 이래 최소 1위 기록

## 가을철 절기 기후정보 다시보기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 9월의 절기

백로(白露)와  
추분(秋分)

9월에는 24절기 중 백로(白露)와 추분(秋分)이 들어 있다.

백로는 처서(處暑)와 추분(秋分)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로 올해는 양력으로 9월 8일이며,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다.

추분은 백로(白露)와 한로(寒露)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로 올해는 양력으로 9월 23일이며, 추분점(秋分點)에 이르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지역의 백로 무렵(9월 6일~9월 10일)의 평균기온 평년값은 22.0℃이며, 1973년 이후 백로 무렵의 평균기온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추분 무렵(9월 21일~9월 25일)의 평균기온 평년값은 24.3℃이며, 1973년 이후 추분 무렵의 평균기온 변화는 거의 없는 추세이다.



박남수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 10월의 절기

한로(寒露)와  
상강(霜降)

10월에는 24절기 중 한로(寒露)와 상강(霜降)이 들어 있다.

한로는 올해 양력으로 10월 8일이며, 공기가 차츰 선선해짐에 따라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이다. 즉, 한로 즈음은 찬이슬이 맺힐 시기여서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하므로 농촌은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해 타작이 한창인 때이다.

상강은 올해 양력으로 10월 24일이며,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이다. 따라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한다.

우리지역의 상강 무렵(10월 2일~10월 10일)의 평균기온 평년값은 15.4℃이며, 1973년 이후 한로 무렵의 평균기온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상강 무렵(10월 22일~10월 26일)의 평균기온 평년값은 11.6℃이며, 1973년 이후 한로 무렵의 평균기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다.

## 11월의 절기

입동(立冬)과  
소설(小雪)

11월에는 24절기 중 입동(立冬)과 소설(小雪)이 들어 있다.

입동은 상강(霜降)과 소설(小雪)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 하나로 올해는 양력으로 11월 8일이며,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여 입동(立冬)이라고 한다.

소설은 입동(立冬)과 대설(大雪) 사이에 있는 절기로 올해는 양력으로 11월 23일이며, 이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小雪)이라고 한다.

소설은 대개 음력 10월 하순에 드는데, “초순의 흄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전할 정도로 날씨가 급강하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지역의 입동 무렵(11월 6일~11월 10일)의 평균기온 평년값은 9.3℃이며, 1973년 이후 평균기온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소설 무렵(11월 21일~11월 25일)의 평균기온 평년값은 5.0℃이며, 1973년 이후 소설 무렵의 평균기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다.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 #1 10월에 시작하는 단풍 VS 11월에 시작하는 단풍

단풍은  
평지보다는 산,  
강수량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 음지보다는  
양지바른 곳에서  
아름답게 나타난다

하늘은 더욱 파랗고 지상은 형형색색의 울긋불긋한 단풍이 뚜렷한 색채의 대비를 이루는 계절인 가을이 돌아왔다. 바야흐로 10월은 단풍 시즌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나무는 나뭇잎 속 엽록소의 분해로 노란 색소인 카로티노이드,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을 형성하여 색이 변한다. 1년 중 단풍을 볼 수 있는 시기는 길어야 한 달 내외뿐 이므로 우리는 더욱 애달프게 단풍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단풍은 최저기온이 5°C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작하는데 특히 9월 상순 이후에 기온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진다. 또한 평지보다는 산, 강수량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 음지보다는 양지바른 곳에서 아름답게 나타난다.

1989년 계절관측을 한 이래로 대전지역에서 가장 빨리 단풍을 볼 수 있었던 해는 1989년으로 단풍나무는 10월 5일이고, 은행나무 역시 같은 해 1989년 9월 23일이었다. 단풍나무는 평년(10월 23일)과 비교하면 18일, 은행나무는 평년(10월 20일)과 비교하면 27일이나 먼저 단풍이 시작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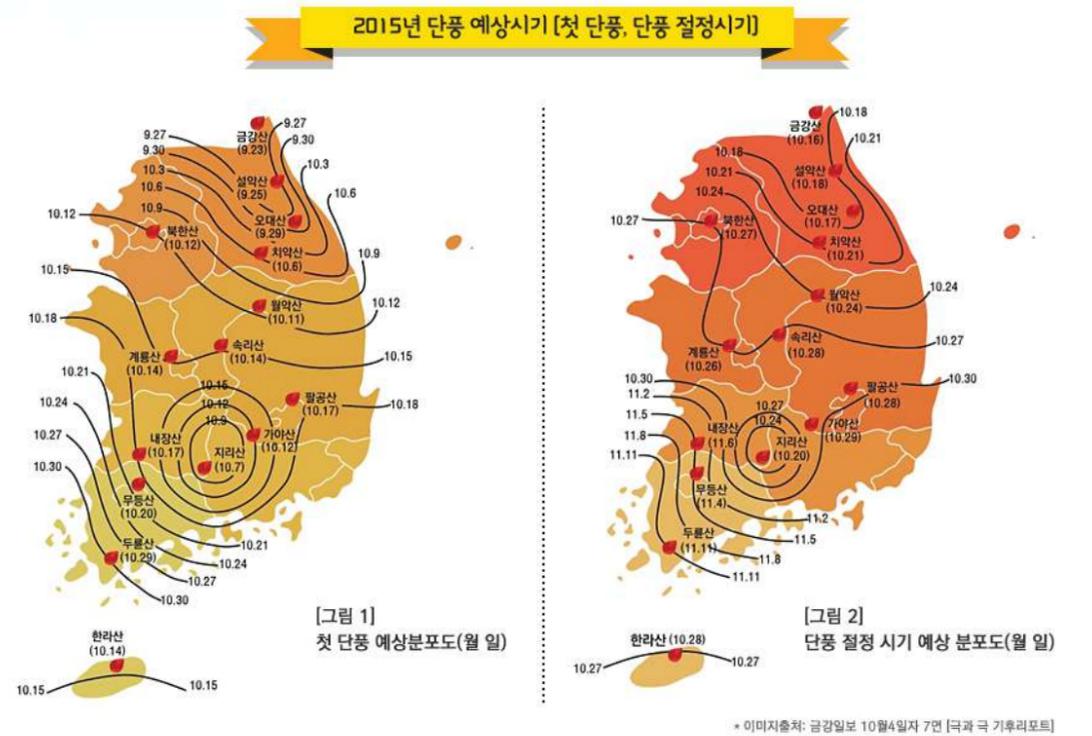
반대로 단풍나무의 단풍시작 시기가 가장 느렸던 해는 1993년으로 첫 시작이 11월 14일로 평년과 비교하면 22일 늦었고, 은행나무 역시 1993년 11월 3일로 평년에 비해 14일 늦게 단풍이 시작되었다.

또한 단풍이 보고 싶은 만큼 궁금한 점은 바로 언제 시작되어 절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단풍시기이다. 그래야 놓치지 않고 한 달 남짓한 시간동안 단풍 나들이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기상상황과 예보를 바탕으로 단풍 시작시기와 절정시기를 예측하여 알려주고 있다.

올해 8월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58.3mm로 평년(290.9mm)보다 적었고(평년대비 20%), 작년(253.7mm)보다도 적었다(작년대비 23%).

2015년 10월 4일  
금강일보 > 사회 > [극과 극 기후리포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또한 9월의 관측 기온(9.15.기준)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평균기온이 21.0°C로 평년(22.0°C) 및 작년(21.7°C)보다 낮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계룡산의 첫 단풍 시작은 10월 14일로 평년보다는 3일 빠르고 작년보다 1일 늦은 것으로 전망되며 단풍 절정 시기는 평년보다 1일 빠르고 작년보다 2일 늦은 10월 26일경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10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큰 일교차와 함께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 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겠다. 일교차가 큰 날씨이므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더욱 짙은 빛깔을 내뿜는 단풍과 함께 남은 가을을 만끽하면 좋겠다.

엘니뇨에 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기상의 큰 변화를  
먼저 예상하는 데 큰 도움

요즘 가을하늘이 한번 봐 달라는 듯 막바지 푸르름을 짙게 내뿜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청명한 가을하늘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금년도 충남 서부권 지역의 심각한 가뭄은 이 지역의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제한급수 등으로 이어지면서 산업과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푸른 하늘과 고운 단풍을 즐기는 대신 예전 같으면 반갑지 않던 가을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최근 우리 지역의 현실이기도 하다.

대전·세종·충남지방의 올해 누적강수량이 47%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극한가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가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자주 '엘니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한다.

세계기상기구에서 정의한 엘니뇨/라니냐는 엘니뇨 감시구역(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 온도 편차가 0.4°C 이상(-0.4°C 이하)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 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적도부근에서는 강한 태양열에 의해 지면의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 기류가 왕성하다. 이렇게 상승된 공기는 고위도로 이동해 위도 30도 부근 상공에 쌓인 후 다시 지면으로 하강한 후 일부는 극지방으로 향하고 나머지는 적도부근으로 모여드는 순환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적도부근으로 향하는 바람은 지구자전의 영향으로 연중 동풍성분을 갖게 되는 데 이를 무역풍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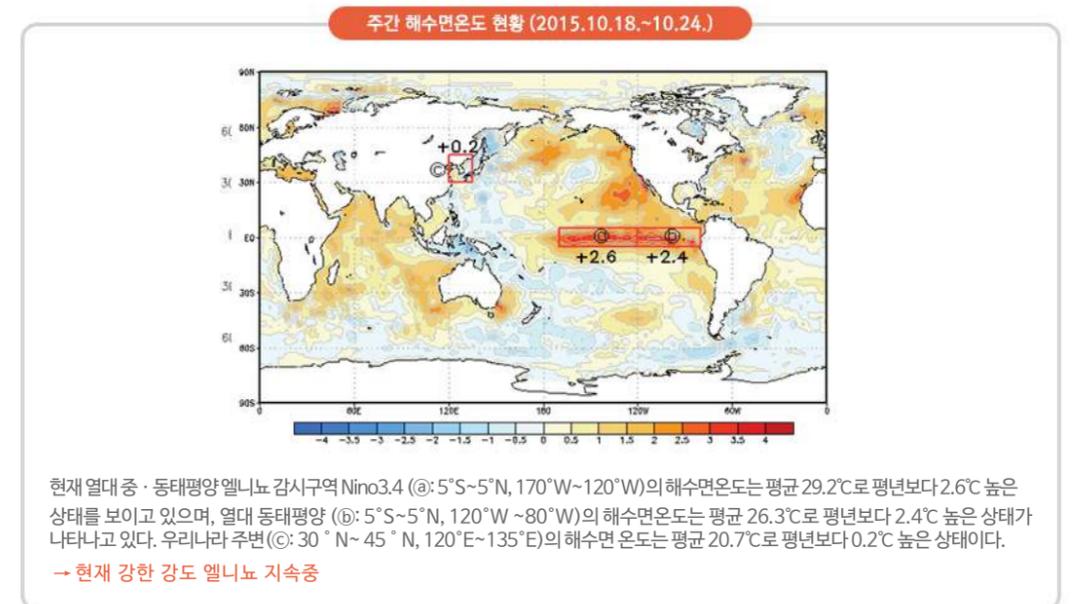
이 지속적인 동풍은 적도부근의 표층수를 동쪽에서 서쪽방면으로 끊임없이 이동 시켜 인도네시아 부근의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표층수가 모이고, 반대로 페루부근 동태평양에서는 용승류를 강화시켜 찬 해수면을 만든다. 그러나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 표층수의 이동도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동태평양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데 이러한 현상이 엘니뇨 발생의 주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엘니뇨가 강화되면 무역풍이 더욱 약화되고 중고위도 지역에서의 대기 대순환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엘니뇨가 있는 해에는 페루와 미국의 남서부 등에서는 폭풍과 홍수가 발생하는 반면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대규모 가뭄이 나타나는 등 예년과는 크게 다른 날씨가 나타난다.

기상청에서는  
엘니뇨/라니냐 전망  
매월 23일 발표

이 엘니뇨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금년의 극심한 가뭄이 엘니뇨가 강화된 해에 발생된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적도 먼 지역에서의 대규모 기상변화는 여러 개의 원인들이 직간접으로 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엘니뇨 현상만을 갖고 쉽게 결론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기치 않은 엘니뇨는 지구 대기의 대순환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결국 이것이 세계 곳곳의 기상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엘니뇨에 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기상의 큰 변화를 먼저 예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상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엘니뇨/라니냐 전망을 매월 23일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10월 18일~24일)의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현황도 볼 수 있다.



최근(10월 18일~24일)의 열대 태평양의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29.2°C로 평년보다 2.6°C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페루 연안해역의 해수면 온도 역시 평균 26.3°C로 평년보다 2.4°C 높은 상태로 현재 강한 강도의 엘니뇨가 지속 중이다.

세계기상기구(WMO)의 엘니뇨 전망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강한 강도의 엘니뇨가 겨울철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엘니뇨/라니냐 전망도 기상청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간편하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 #3 10월에 내리는 눈 VS 12월에 내리는 눈

### 첫 눈은 대체 언제쯤 내리는 걸까?

지난 11월 26일 목요일 아침 출근길,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첫눈이 그것도 아주 평평 내렸다. 이날 새벽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내린 첫눈은 오전에 내륙 지역 까지 확대되어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 관측됐다. 첫눈 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대전지방기상청은 관할구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하였다.

26일 24시를 기준으로 대전 2cm, 보령 12cm, 천안 17.5cm의 적설량을 기록하였고 특히 충남 서해안 지역의 서천은 27일 03시까지 22cm가 내리면서 대설경보까지 발표되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12월이 되면 가장 관심을 갖는 기상현상은 바로 ‘눈’이다. 먼저 다가오는 25일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릴까? 라는 귀여운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눈의 양에 따라서 감성적인 눈이 때로는 악마로 변하기도 하므로 방재를 위해서도 올 겨울 눈이 얼마나 내릴지는 모두의 관심사이다.

그럼 첫눈은 대체 언제쯤 내리는 걸까?  
대전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빨리 첫눈이 내렸던 해는 1981년으로 바로 10월 23일에 첫눈이 내렸다. 일반적으로는 10월에 첫눈이 내린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내린다는 예상조차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마치 하늘이 깜짝 이벤트를 하는 듯 했을 것이다. 눈이 가장 마지막으로 관측되었을 때가 1982년 2월 6일이었으니 1981/1982년 겨울은 눈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났다.

그럼 반대로 첫눈이 가장 늦게 내렸던 해는 언제일까?  
바로 1984년 12월 18일 이었다. 무려 가장 빨리 내렸던 해보다 약 두 달 정도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한 4월까지 눈이 내린 사례도 있다. 최근의 일이라 기억이 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2013년 4월 20일에 대전에 눈이 왔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대전에 눈이 내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1968년 12월 대전 문화동에 측후소가 신설되면서 1969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47번의 크리스마스 중 눈이 내린 날은 18번으로 약 38% 정도이다.  
2012년 12월 25일에도 대전에는 1.8cm의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1969년 관측 이후  
47번의 크리스마스 중  
눈이 내린 날은 18번,  
38%정도

적이 있었으니 올해는 어떻게 될지 확률 상 기대해보아도 좋겠다.

대전지역의 2015년 12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변화가 크겠으며, 찬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 또한 기온은 평년(0.6℃)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28.9mm)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지역 기상과 관련된 핫이슈는 단연 '가뭄'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저무는 한해를 보면서 느끼는 서운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 하면서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다. 연말이 되면 원가의 아쉬움, 괜히 가슴 진한 그리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신년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다.

금년 2015년 대전 · 세종 · 충남지역의 기상과 관련된 핫 이슈는 단연 '가뭄'이었다. 봄철 가뭄이야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올해의 가뭄은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축한 1973년 이래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이하게도 금년에는 우기철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 특히 금년 9월, 이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19.6mm로 예년의 13%밖에 되지 않았고, 9월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536mm로 평년의 47%에 머물러 가뭄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달이기도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10월 이후 지금까지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아 12월 17일 기준으로 볼 때, 대전은 818mm로 평년의 56% 수준까지 회복하면서 한 고비 넘긴 듯 보이지만, 물 부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장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도 충남 서부지역에 천 억원 이상의 가뭄관련 예산을 긴급 반영하고, 청양에서 시작한 가뭄극복 아이디어인 '겨울철 논물 가두기'가 충남도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가뭄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여름철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덜 준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 금년 태풍은 27개가 발생해 평년(1981년~2010년)의 25.6개보다 1.4개가 많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은 4개로 평년의 3.1개보다 많았다.

하지만 태풍진로가 동해안으로 치우쳐 지나가면서 충청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덜 받았고 이것이 강수량 부족의 큰 원인이 된 것이다. 이에 충남 서부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절수기 설치와 함께 대대적인 절수운동에 나섰고, 결혼식 날 비가와도 기분이 좋다는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

## 올해 첫눈이 내린 날은 11월 26일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첫눈이었다.

올해 첫눈이 내린 날은 11월 26일로 이날은 흔치않게 제법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대전지방 기상청에서는 대설주의보는 물론이고 대설경보까지 발표하였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안에 5cm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는데, 이날 서천과 아산지역에는 20여cm가 내리기도 하였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얼마나 눈이 올 것인가를 두고 이벤트를 하는 기업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눈을 감성적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내리면 큰 재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아무튼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올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올 겨울 우리지역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0.6℃)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28.9mm)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변화가 크겠으며, 특히 1월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



## 서리꽃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날씨에 나무가지가 하얀색옷으로 갈아입었다.



24-25

## 예보상식

눈이나 비가 내리기 전 하늘을 보면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구름이 켜다고 항상 눈이나 비가 오는 것일까?

구름 입자의 크기는 0.01mm 정도로 매우 작는데, 1mm 크기의 빗방울이 되려면 약 100만 개의 구름 입자가 모여야 한다. 이처럼 입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물방울로 구성된 구름이 상공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며 하늘에 구름이 있어도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구름에서 비나 눈이 만들어지려면 구름 속의 알갱이, 즉 구름 입자가 빗방울 크기로 성장하여야 한다. 성장한 구름의 상층부는 기온이 낮아서 구름 입자가 얼음 알갱이로 존재한다. 비가 내리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우리나라와 같이 중위도에 위치한 지역에서 형성되는 구름은 기온이 낮다. 따라서 구름 내에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존재하는데, 이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계속 달라붙어서 커지면 얼음 알갱이는 무거워져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 때 얼음 알갱이가 떨어지다 녹아서 비가 된다. 이와 같이 형성되는 비를 '찬비'라고 하고, 이러한 이론을 '빙정설'이라 한다.

2) 기온이 높은 저위도 지역의 구름에서는 얼음 알갱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데, 작은 구름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동안 성장한 물방울이 떨어져 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비를 '따뜻한 비'라고 하고, 이러한 이론을 '병합설'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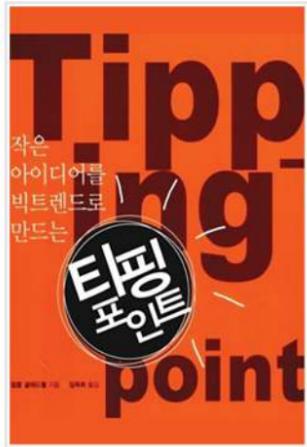
한편, 눈은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낮아서 구름에서 성장한 얼음 알갱이가 녹지 않고 그대로 떨어진 것이다. 얼음 알갱이가 형성된 곳의 수증기 양이나 기온 차에 따라 눈의 결정은 매우 다양하게 성장한다.

또한 상승 기류가 강한 구름에서는 성장한 얼음 알갱이가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을 반복하면서 성장하여 커다란 얼음 덩어리인 우박을 만들기도 한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구름에서 비나 눈이 만들어지려면 구름 속의 알갱이, 즉 구름 입자가 빗방울 크기로 성장하여야 한다.



박보연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말콤 글래드웰(작가) 저  
21세기북스 (2004.09.14.)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이 소리 없이 번져나가면서 이루어 내는 변화가 어느 지점에서나 우리 삶의 질적인 도약을 가능케 한다는 발상은 유쾌하기까지 하다.

이번에 읽은 ‘티핑포인트’의 ‘추천의 글’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내 생각에는 이 글만 읽고 책을 덮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고 보니 내가 싫어하는 자기 계발서이기도 했지만 추천의 글에서 말하는 이름 없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결론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은 후에 느낀 점을 적는 것이 독후감이기에는 나는 이 책에 대해 좋은 말을 남길 생각이 없다. 그러나 비판을 통해 좀 더 발전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내용 중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직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티핑포인트란 극적인 상황 변화를 일으키는 어느 시점, 또는 원인이다. 저자는 소수 전파자, 고착성 요소, 상황의 힘이라는 요소를 제시하며 티핑포인트를 분석한다. 책에서 제시한 여러 사례와 연구를 근거로 볼 때 저자의 많은 노력과 통찰이 느껴진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윤리와 도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자의 접근방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제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다. 실제로 티핑포인트라는 용어는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고착성 요소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사례 중에는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TV프로그램이 있다. 저자는 대니얼 앤더슨 교수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서 취학 전 아동이 TV를 시청하는 방식은 어른들의 그 것과 차이가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팀이 이 점을 잘 적용하여 바보상자를 학습도구로 승화시켰다고 말한다. 물론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했고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방송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앤더슨 교수의 연구는 유아들이 TV를 보는 것이 해롭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학에서도 TV나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접촉은 유아 또는 아동의 지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며 직접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부모와 교류하며 학습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책은 이 TV방송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만 주목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만을 고려한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으로 날마다 대체하여 연습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상길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상황의 힘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분석을 통해 뉴욕 지하철의 총격사건과 깨진 유리창 이론을 예시로 제시한다. 가장 사소한 것이 상황을 이끄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아주 사소한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책의 흐름 상, 깨진 창문을 교체하고 무임승차를 단속하면서 범죄자의 비율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했다는 식의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현상에 대한 표면적인 접근에 그침으로써 범죄의 원인을 당시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에 국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던 원인들은 티핑포인트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책의 결론은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이 우리 삶을 바꾼다기보다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을 잘 파악하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린다. 그 와중에 윤리나 도덕적인 고려는 찾기 힘들다. 우연한 전파 혹은 의도된 술책으로 인한 판매상품의 선풍적인 인기, 실력이나 능력이 아닌 인맥을 통한 계약 성사, 잘못된 접근 방법을 선택한 10대 금연 홍보 등이 그러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은 선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선행을 통해 우리 삶 전체의 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선행을 남에게 홍보하지는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변화가 하나 둘 쌓이면 어느 순간 티핑포인트를 마주하면서 확연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이라는 특성상, 책에서처럼 원인 분석이 가능 할지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을 갖고 실천에 옮기는 개개인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할까. 공직자는 비록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시의 눈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이나 악행이- 주로는 악행이 - 주변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공직사회라고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선행을 실천하거나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개개인이 많아진다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본인 스스로가 이 책에서 말하는 커넥터, 메이븐, 세일즈맨이 되는 것은 어떨까. ‘나 하나라도’에서 좀 더 나아간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도덕적인 티핑포인트가 자주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 가을문화체험수기 가을문화체험? 서해안 대설체험...



몇 번의 미뤄짐 끝에 이루어진 2015년 가을문화체험.  
대전청 기후서비스과 박창용, 조아라, 관측과 홍연주, 청주시청 기후서비스과 김윤철.  
이렇게 2013년 동기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이 되어서 인지 점점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고조되었다. 우리가 목표로 한 곳은 서천의 국립 생태원, 금강 주변의 철새도래지, 신성리 갈대밭과 같은 곳으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주제로 삼고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가을문화체험은 겨울문화체험으로 변하였고, 잠시 오고 말 줄 알았던 올해의 첫눈은 우리의 예상을 비웃으며 특보수준으로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2번이나 취소되고 너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문화체험이기에 우리는 눈발을 해치고 목적지인 서천으로 향했다.

서천 국립생태원을 도착해서 우리를 반기는 건 여전한 눈...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와 새차게 내리는 눈을 뚫고 들어간 생태원은 신규자 연수시절, 견학으로 들렀던 장소라서 그런지 신규자 연수시절로 돌아간 듯한 들뜬 느낌을 주기 충분했다.

서천 국립생태원은 2013년 3월에 임시운영개관을 했으며, 국립생태원은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하여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 생태 전시관이다. 이전에 와봤던 곳이었지만 2년만에 찾아 간 곳은 익숙함과 새로움으로 우릴 반겼다.



박창용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대설주의보도 아닌 대설경보가 내려진 서천이었기에 생태원에서만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밖에 없던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고 숙소로 올 수 밖에 없었다. 신성리 갈대밭과 금강생태 공원을 갈 예정이었지만 20cm가 넘는 눈이 온 곳에서 움직이기란 쉽지 않았다.

다음날의 목적지는 금강철새도래지.  
서천과 군산은 금강하구둑만 지나면 되는 가까운 거리지만 엄청난 눈 때문에 그 거리는 멀기만 느껴졌다. 가까스로 도착했지만 내리는 눈 때문에 철새들은 볼 수 없었고, 아쉬운 마음에 군산시내로 들어가 경암동 철길마을과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인 이성당의 빵으로 아쉬움을 달래면서 우리의 가을(?)문화체험은 막을 내렸다.

비록 눈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있던 가을문화체험이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을 갔다 왔기에 좋은 경험이었고, 이런 추억을 만들게 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수기를 마친다.



# 브런치 기후카페 대전점 총 매니저, 뉴욕의 브런치 카페를 접수하다



여자라면 누구나 신혼여행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을 것이다. 새하얀 모래와 파도, 최고급의 풀빌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생에 한 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을 가자!’ 라는 마음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뉴욕’이었다. 신혼여행에 앞서 뉴욕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진행하고 있는 브런치카페를 가기 위해서였다.

### 두근두근, 뉴욕 신혼여행

직항임에도 불구하고 14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JFK국제공항 도착했고, 벌써 뉴욕커가 된 것처럼 신난 나는 역시 뉴욕의 공기는 다르다며 한껏 상기되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인 일주일 동안의 뉴욕을 후회 없이 보고 가리라 마음먹었다.

첫째 날, 이층버스인 메가버스를 이용하여 미국 정치의 심장부 워싱턴 DC로 출발하였다. 백악관 - 국회 의사당 - 국립 미술관 - 국립 자연사 박물관 - 링컨 기념관 - 워싱턴 기념탑 등 상징적인 곳을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둘째 날의 핵심은 바로 뉴욕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직접 전망대로 올라가 뉴욕의 야경을 내 발밑에 두는 꿈같은 일을 포함하여 근처에 루프바(옥상위에 있는 야외 정원 겸 바)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바라보며 마티니 한잔했던 것은 더 근사하게 뉴욕을 가슴에 새겨주었다.

셋째 날, 숙소 근처 LOVE 동상에서 우리도 한 컷 빠르게 인증샷을 찍어주고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을 모아놓은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갔다. 모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며 예술적인 감각을 맘껏 뽐내기도 하고 영화에서처럼 멋진 작품 앞에 턱을 괴고 한동안 서서 많은 생각하는 지적인 포즈를 하여 멋들어지게 사진을 남기고 싶었다. 그러나 많은 그림 사이에서 예술적인 감각과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조금 슬프기도 했다.

### 브런치 기후 카페를 탄생시킨 사라베스에 가다

뉴욕에 와서 진심으로 반드시 가보겠다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곳을 찾았다. 바로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브런치 기후카페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는 곳,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 나오는 멋진 여자주인공 4명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실제 장소인 ‘사라베스’를 간 것이다. 당연히 브런치 기후카페가 아니었다면 이토록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을 것 같다. 신혼여행을 와서도 일하려고 여기 왔느냐며 투덜대는 남편에게 카메라를 들게 하고서는 브런치 카페 앞에서 난 리포터로 빙의해 현장감 있게 동영상을 찍어보기도 하였다.



박보연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The lion king, prince Simba, is born in Africa and the animals of the Pride Lands pay tribute. Later Simba is told by his father, King Mufasa, that when Mufasa dies, Simba will become King of the Pride Lands. Simba's Uncle Scar would have been king after Mufasa had Mufasa not had a child. Fueled by rage, Scar plots to kill Mufasa and Simba so he is able to take over the throne.

He uses the hyenas to cause a stampede through the canyon where Mufasa and Simba are, and personally ensures Mufasa falls to his death. Simba survives so Scar implies that the stampede was Simba's fault and that the pride will blame him. Simba flees the Pride Lands meaning never to return home. Simba is found, collapsed with exhaustion, by Timon the Meerkat, and Pumbaa the Warthog, and the trio become fast friends. Simba stays with them well into adulthood until his childhood friend, Nala, hunting beyond the Pride Lands that herds had deserted under Scar's mismanagement stumbles upon Simba's new home.

Astonished to find him alive, she begs him to return to the Pride Lands, where Scar has reigned as King for years, and ruined everything. All of the animals will starve if Simba does not return. Simba eventually agrees to fight for his kingdom. Simba battles Scar, and learns his father's death was Scar's fault, not his own. Simba prevails and takes his fathers place as rightful king, mirroring 'The Circle of Life.' Written by fallgeek...



또한,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연어 베네딕트 딸기 팬케이크를 먹고서는 한 끼 식사 잘했다며 배를 두드리고 말았다.

### 뉴욕을 즐긴다

넷째 날,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다녀왔다. 온종일 봐도 즐거울 만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박물관을 다녀온 뒤 한화로 40만원 가까이 주면서 본 브로드웨이 민츠코프 극장의 뮤지컬 ‘라이언 킹’은 무대효과와 배우들의 표현력,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큰 감동을 주었다. 마지막 다섯째 날, 브루클린으로 이동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터루거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다. 대기가 기본으로 1시간 정도 있다고 했지만 운 좋게 30분 만에 자리에 앉아 세계적인 스테이크를 맛보았다. 마지막 날이니 뉴욕 하면 떠오르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갔으나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빗방울은 무심하게도 맨하탄을 적실만큼 많이 내렸고 덕분에 페리 안에서 사진을 찍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다. 역시 여행은 날씨가 절반을 차지하는 모양이다.

### 배낭여행 같은 신혼여행을 마무리하며

여행 계획을 분명히 완벽하게 짰다고 생각했는데도 항공 우주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을 놓친 것은 아직도 속상하다.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려 뻑뻑하게 무리해서 일정을 잡았던 게 실수였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뉴욕은 한 번만 올 곳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오히려 놓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크기에 나는 다시 한 번 뉴욕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신혼여행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떠나는 배낭여행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만족할 만한 즐거운 여행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

단 한 번이 될 신혼여행!

누구나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머릿속에 펼쳐져 있겠지만 브런치 기후카페와 함께한 배낭여행 같던 나의 뉴욕 여행도 꽤 괜찮은 신혼여행이었다.

\* 하늘사랑 2015년 11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2015년 11월 5일 9시 50분!

울릉도 성인봉 정상석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며 한국의 100대 명산을 완등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늘에서는 축포가 터지고 산천초목이 박수를 보내는 듯 했고, 동해가 보내온 감동의 물결은 가슴을 파고들었다.

### 산과의 인연

산과의 인연을 설명하자면 200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근교에 있는 산을 찾아다니며, 가족들과 떨어져 외로운 서울생활을 버티게 해줬다. 서울 생활에 점차 적응할 때쯤 동료직원으로부터 한국의 100대 산에 대해 듣게 되었다.

‘1년에 10곳씩 10년이면 한국의 100대 산을 다녀올 수 있겠네. 한번 해볼까?’

나도 모르게 100대 산 등반을 ‘선언’하게 되었다.

2008년 3월 20일 강화 마니산을 처음으로 한국의 100대 명산을 산행하기 시작하였다. 정상석과 함께 인증사진을 찍는 것을 원칙으로 북으로 설악산, 남으로 한라산, 서쪽으로 홍도 깃대봉, 동쪽으로 울릉도 성인봉까지 8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모두 완등하게 되었다. 가장 많이 산에 오르는 해는 2011년으로 19곳을 찾았고, 가장 적게 오르는 해는 2009년으로 7곳이었다.

### 산마다 느껴지는 특색

100곳의 산을 오르면서 가장 맛있는 산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산마다 제각각의 멋과 운치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산에서 맞는 계절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뜻한 남서풍과 싱그러움 봄꽃 향기 가득한 봄의 산, 울창한 녹음 속에 시원한 바람을 맛볼 수 있는 여름의 산, 붉은 카펫처럼 타들어 가듯 단풍과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의 가을 산, 순백의 눈길 위 뾰드득 소리까지 정겨운 겨울 산과 그 정상에서 맞는 차가운 북풍 등 이 모든 것은 정상에 올라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 100대 명산을 등반하며 쌓아온 값진 경험

산행 초창기에는 나를 추월하는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식사시간까지 줄이면서 속도에만 집착했다. 그러다 보니 맛있는 경치는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땅만



이인성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보고 산을 오른 적도 있었다.

등산은 기록경기가 아니며 산을 오르는 과정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행 초보자는 자신이 힘들 때 휴식하고 경험자는 전망이 멋진 곳에서 휴식한다는 말처럼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며 산을 등반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등산을 마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머리에서 최소 5분이라도 근육을 풀어주는 준비운동을 필수로 해야 한다. 혹시 모를 위험시에 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길을 가다 보면 위험 지역을 알리는 우회 안내판이 있다. 위험 지역으로 가야 재미와 스릴이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안내를 따라야 하며 날씨정보를 확인하여 비 오는 날을 피해 산행했다. 그다음으로는 장비이다. 특히 겨울철에 아이젠, 귀마개, 장갑은 꼭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스틱을 추천한다. 스틱이 처음에는 무겁고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 이유를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스틱을 사용해보니 발로만 하는 산행보다 손까지 사용하니 산행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경감되었다. 또한, 하산 때 하중을 분산하여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꼭 스틱을 사용하여 산행하면 좋을 것이다.

### 아름다운 산에서 인생을 배우다

남해 금산 산장에서 푸른 남해를 보면서 먹는 점심은 최상의 만찬이었고, 응봉산의 협곡, 마이산의 탑, 설악산의 아름다움, 지리산의 장엄함, 한라산의 눈, 일출과 운해와 폭포는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내려올 산을 왜 오르느냐?” 라는 질문에 “산이 저기에 있으니깐!” 산에 오른다고 말한다. 산행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역정, 직장생활 등의 모든 과정이 산행과 같다 한다.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고 계속된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없기 때문이다.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예보관들은 업무에 특성상 대부분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근무한다. 야근 시에는 밤을 이기고 나를 이기면서 정해진 시간에 전문과 예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체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휴무일 중 하루는 바위 속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의 자태를 보기 위해 산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 하늘사랑 2015년 12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0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15년도 계룡산 단풍 현황정보 서비스 (10.1.~10.31.)

대전지방기상청은 날이 증가하는 단풍관광 수요에 발맞추고자 소속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10월 한 달간 유명산(계룡산) 단풍실황 자료를 제공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으로 자료를 제공했으며, CMA뉴스와이드 방영 등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다. 정부3.0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선 서비스로 내년에는 이를 확장하여 벚꽃실황정보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예보관직업체험 커리어멘토 프로그램 운영 (12회/10.5.~11.5.)

기상업무에 대한 직업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상 업무 현장의 활동을 체험하여 기상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 멘토』를 진행하였다. 10~11월 총 12회 338명의 중·고등학생이 대전지방기상청을 찾아 생생한 강의와 신나는 체험으로 85.6%의 만족도를 보였다.



고윤화 기상청장 가뭄재해현장 보령댐 방문 (10.8.)

가뭄재해 지역 현장점검 및 근무자 격려를 위해 고윤화 기상청장이 충남 보령댐을 방문하였다. 올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은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보령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용수공급조정기준이 "심각" 단계에 도달하여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는 등 극심한 가뭄 상황을 겪고 있다.



기상1호 승선관측 (10.13.)

대전지방기상청장과 예보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10월 13일 안면도와 천수만 부근 해상에서 기상1호 승선관측을 실시하였다. 충남앞바다 평수구역(천수만)의 특보세분화 추진을 위해 충남앞바다 지형 특성 조사와 해양기상관측자료 비교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충남지역 기상기후서비스 발전 간담회 개최 (10.20.)

홍성기상대는 10월 20일 10시~14시까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충남지역 기상기후서비스라는 주제로 대전지방기상청, 충남도청,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국립공주대학교 등 기상 관련 유관기관(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의 주제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상기후관련 정책공유 및 소통으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5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장려상 수상 (10.20.)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면서 기상청에서는 '2015년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기후서비스과 김병준, 박창용 주무관이 한 팀이 되어 '기상기후 빅데이터, 고급진 『쌔앗(중자)』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융합 아이디어 부문에서 장려상(기상청장상)을 수상하였다.



브런치 기후 카페 활동팀 모임 운영 및 결과 (10.20./11.26.)

대전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상지식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난 5월부터 브런치 기후카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총 3개 팀 16가족이 함께하였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뛰어난 활동 성과를 나타낸 '꽃보다 엄마들의 기후이야기' 1개 팀을 선정하여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엄마와 함께 아이들도 기후변화를 쉽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국민안전처장관 주재 가뭄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10.21.)

충남 예산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주재의 가뭄대비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환경부, 국토부, 충남도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각 기관이 참석하여 가뭄 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최근 강수현황과 가뭄전망 등을 보고하였으며, 가뭄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뭄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 적극적인 기상지원을 약속하였다.

#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0월~1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충남 서부지역 가뭄 심화에 따른 가뭄극복 대토론회 참가 (10.26.)

지난 10월 26일 한국방재학회, 충청남도, 한국수자원공사 공동 주최로 '충남 서부 지역 가뭄 심화에 따른 가뭄극복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이 토론회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여 최근 계속되는 가뭄현황과 전망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수문기상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10.28.)

대전지방기상청은 10월 28일 대전지방기상청 대회의실에서 수문기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수문기상협력센터 류경식 책임연구원은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다목적댐 운영 현황"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및 용수이용 현황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 물관리 운영시스템에 대해 발표하였다. 수문기상협력센터와의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충남지역의 가뭄·홍수 등 수문기상재해에 사전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이해확산 위한 외부특강 (10.28./11.23.)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한 외부특강을 2회 진행하였다. 10월 2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한 지자체 보건담당자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23일 가정과 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컨설팅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그린리더 양성과정에 기후변화 이해 및 교육기법을 소개하였다.



기후변화 사행시 짓기 페이스북 이벤트 개최 (10.30.~11.13.)

대전지방기상청은 페이스북을 이용한 '기후변화 사행시 짓기'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다짐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 이벤트에는 총 128개의 사행시가 접수되었고 그 중 10개를 우수 사행시로 채택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수여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 청사 및 소속기관 환경 개선 (11월)

대전지방기상청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민원인들의 편의 개선 그리고 관측품질 향상을 위해 '대전지방기상청 청사 및 소속기관 시설 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하였다. 공사기간은 11월 약 한달간 진행되었으며 도색공사(경비실 및 청사현관 등), 관측장소 전면부 노후철크스 철거, 청사 울타리 일부 보수공사와 각 사무실 석면 철거·수장 공사 등 대대적인 공사가 이뤄졌다.



예· 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세미나 운영 (11월~12월)

대전지방기상청은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한 예측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겨울철 집중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대설 조기예측 가이던스 제공, 블로킹에 의한 겨울철 위험기상 발생, 충남북부내륙 대설 특성 등을 심층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기상이론지식과 예보경험을 겸비한 예보관 양성을 위하여 "기상이론 마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보과 6급 이하 전 직원이 와도, 어는비, 호도그래프 등 개인별 전문지식을 학습한 후 과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전문예보관 양성에 힘쓰고자 한다.



자동기상관측소 시설개선 추진 (11.1.)

쾌적하고 안정적인 관측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일 금산자동기상관측소 스틸 하우스 도색, 웬스 수리를 완료하였고, 제천·금산 자동기상관측소 소화 설비 개선을 통한 화재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충남지역 특별행정기관장 대상 도정간담회 참석 (11.3.)

지난 11월 3일, 충남도청에서 지역 특별행정기관장 대상 '도정간담회'가 열렸다.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특별행정기관장이 참석하여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협의한 가운데 대전지방기상청장은 가뭄현황, 장기예보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여 지역의 가뭄 극복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1월~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세종특별시장 주재 갈수기 가뭄극복 대책회의의 참가 (11.5.)

지난 11월 5일 세종특별시장 주재 갈수기 가뭄극복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각 기관이 참석하여 올해 가뭄현황 및 추진사항과 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 분야별 가뭄 극복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서비스과장은 세종시 가뭄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가뭄 기상정보 서비스 등 앞으로 적극적인 기상지원을 약속하였다.



유관기관 기상정보활용 교육 (11.5./12.7./12.18.)

대전지방기상청은 유관기관의 기상정보 활용 교육 요청에 의해 11월 5일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11월 12일 기상재해 이해과정 (지자체 방재담당자), 12월 7일 긴급 구조지원기관, 12월 18일 보령해양경비안전서를 대상으로 클라우드방재 기상시스템 활용, 적설관련 기상정보 활용방법, 일기도 분석을 통한 해양기상 예측법 등을 교육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금강유역환경청 간 간담회 (11.11.)

대전지방기상청(청장 임용한)과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양 기관간 교류·소통을 활성화하고자 11월 11일 「대전지방기상청-금강유역환경청 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금강유역환경청장 외 간부 5명과 직원 4명이 대전지방기상청을 방문하여 업무회의 및 주요시설(홍보관, 예보센터, 관측장소)을 견학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관 전 홍성기상대장 명예퇴임 (11.12.)

홍성기상대는 11월 12일 윤재관 전 홍성기상대장의 명예퇴임식을 개최하였다. 윤재관 전 홍성기상대장의 명예퇴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날 대전지방기상청장을 비롯한 기획운영과장, 관측과장 그리고 홍성기상대 직원들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윤재관 전 홍성기상대장의 명예퇴임을 한마음으로 축하드리며 꽃다발과 함께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2015년도 지역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회 (11.9.)

대전지방기상청은 11월 9일 2015년 지역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충남 서산·태안의 생강·마늘과 충북 제천의 황기·감초, 단양의 아로니아까지 충청도 지역의 경제작물에 대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상 및 기후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농민들이 알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맞춤형 기상기후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앞으로 지역기후서비스사업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지방기상청 - 충남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11.11.)

대전지방기상청(청장 임용한)과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특화 산업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지방기상청 강당(3층)에서 11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산업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고,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지역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개발, 기상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양 기관의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5년도 레이더 현장연구과제 최종발표회 (11.17.~11.18.)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레이더 영상과 대기연직 구조분석을 통해 충청지방의 낙뢰 발생과 이동 예측을 위한 현장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11월 17일~18일 안면도에서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지역기상담당관 운영사례 발표 장려상 수상 (11.19.)

11월 19일 지역맞춤형 기상기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지역기상 담당관들의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다.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는 '브런치 기후카페' 라는 최신 트렌드에 맞춤형 기상기후 지식 보급을 점목시킨 프로그램 발표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1월~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대전지방기상청예보현업실및정보통신실리모델링추진완료 (11.24.)

8월부터 추진되었던 정보통신실 및 예보현업실의 리모델링이 11월 24일 완료 되었다. 쾌적한 근무 환경과 최적의 관측환경 조성을 통한 고품질 기상관측 자료 생산이 기대된다. 좋은 근무환경 아래 예보과는 「2015년 우수예보기관 평가」에서 지방기상청 가운데 예보(중기예보)와 특보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도 웨더와이저 선발대회 (11.25.)

대전지방기상청은 11월 25일 “웨더와이저 선발대회”를 실시하였다. ‘웨더와이저’는 우수한 예보분석과 브리핑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하는데, 2009년에 선발을 시작하여 올해로 7회째 진행되었다. 웨더와이저(최우수상)는 청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김윤철 주무관, 우수상은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배철호 주무관과 예보과 김보영 주무관이 수상하였다.



국가기상정보분석센터 개소식 행사 참석 (11.27.)

지난 11월 27일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국가기상정보분석센터 개소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이번 개소식 행사의 축사를 통해 국가기상정보분석센터의 설립을 축하하고 센터가 설립되기까지 노력하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앞으로 국가기상정보분석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겨울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12.2.)

대전지방기상청은 12월 2일 “겨울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대전광역시,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등 협의회위원과 관계자 27명이 참석하여, 겨울철 대설, 한파, 풍랑 등 위험기상으로 인한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해 토론하였다. 방재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통한 기상재해 예방을 기대한다.



11월 이달의 기상인 수상 및 공적 발표 (12.2.)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지역 극심한 가뭄에 ‘가뭄기상정보 서비스’로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가뭄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기상청 11월의 기상인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기상청 12월 월례조회에 참석하여 가뭄 대응과 2차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그간 노력한 공적을 발표하였다. 앞으로도 지역기상서비스와 기후업무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지진관측소 시설물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완료 (12.2.)

지진관측소에 설치된 안내판이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관서 변경으로 현행화가 필요하고, 안내판 사이즈, 문구, 설치장소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12월 2일 제작 및 설치완료하였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장비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유관기관 방문 협의 (12.9./12.17.)

홍성기상대(대장 김태수)는 겨울철 방재업무대비를 위해 12월 9일부터 17일 까지 홍성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가뭄관련 현황 및 앞으로의 기상 전망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 사진: 12월 9일 서산시(시장 이완섭) 방문)



충남앞바다 평균구역(천수만) 특보 세분화를 위한 지역해양담당기관 설명회 개최 (12.10.)

대전지방기상청은 12월 10일 “충남앞바다 평균구역(천수만) 특보 세분화”를 위한 지역담당기관의 의견 수렴과 정책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충청남도, 보령·태안해양경비안전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양기상특성 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충남북부앞바다 특정관리해역 중 천수만해역 세분화를 설명하고 홍보하였다.



##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미세먼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12.15.)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12월 15일 대전지방기상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승근 연구사를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급한 요청에도 질 높은 강의 덕분에 미세먼지에 대해 한층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이번을 계기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대전지방기상청 간의 소통이 늘어나기를 기원한다.



연말맞이 「사랑의 연탄나르기」 (12.16.)

지난 12월 16일 대전지방기상청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르기」 행사를 운영하였다. 이날 대전지방기상청은 추운 날씨 속에 연탄과 쌀 등 생필품을 배달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청 봉사동호회 「사랑나눔회」가 주관한 것으로 사랑나눔회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12.22.)

대전지방기상청과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는 대전, 충청남도 지역의 기후 변화에 의해 늘어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12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인적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조사, 분석을 위한 협력,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기별, 날씨별 교통사고 통계자료 분석 제공 등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예보역량향상 프로그램「위대한 탄생 최종 발표회」개최 (12.29.)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1년간 선·후배 노하우 공유와 우수 예보인력 양성을 위한 예보팀별 멘토링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을 운영하였고, 12월 29일 최종 발표회를 실시하였다. 최우수팀은 대전청 예보3팀이, 우수팀은 대전청 예보2팀과 청주지청 예보2팀이 선정되었다.

## 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0월~12월 대전·세종·충남 관측기록



### 10 October

- 10.13. 계룡산 단풍 시작
- 10.26. 계룡산 단풍 절정
- 10.31. 대전·홍성 첫 얼음, 첫 서리 관측

### 11 November

- 11.26. 대전·세종·충남 첫 눈
- 11.26. 대전·세종·충남 첫 대설특보

### 12 December

- 12.28. 대전 올겨울 최저 기온 기록 (-7.6℃)

## 민원 신청방법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

###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 민원신청방법

#### 1. 일반민원

기상현상 증명과 기상자료제공에 대하여 민원실에서 방문·우편·전화·FAX·E-mail의 방법으로 접수·처리하는 민원



**tip** 민원인은 각 서식의 해당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 → 담당자가 민원 접수 및 처리 → 민원인은 민원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 → 민원 발급 및 수령

#### 2. 기상청 전자민원

기상현상 증명과 기상자료제공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설치된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ma.go.kr>)를 통하여 접수·처리하는 민원



**tip** 민원인은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ma.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민원 신청을 하시면 2015년 8월 7일부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즉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신청가능 대전지방기상청 체험학습

### 체험학습 소개

- 대전지방기상청은 대덕연구단지에 자리잡고 있어 청사 주변에는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 등 관람시설이 있음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 중학교 학생 수준의 체험학습 가능
- 기상홍보관은 본관 3층에 위치



**기상업무전시실**  
일기예보의 생산과정 및 기후변화에 대한 안내



**기상역사전시실**  
기상관측 역사 및 대전지방기상청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



**날씨방송체험실**  
기상캐스터 체험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기상장비전시실**  
현재날씨를 관측하는 관측 장비를 실물로 비치

### 체험학습 신청방법

- 개인, 단체 모두 가능하며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담당 주무관 또는 기상해설사에게 전화 신청
  - 담당 주무관 : 070-7850-4164
  - 기상 해설사 : 070-7850-4150

